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24화 부처님의 초전법륜



“그 대들 다섯 명은 앞으로 여래(如來, Tathagata)를 싣다르타나, 동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참으로 붓다(如來, Buddha)가 된 것이다. 그대들은 그 동안 훌륭한 수행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 수행 방법이 틀려 있으므로 수행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설산을 찾겠다며 북쪽으로 향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으니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내 그대들을 위하여 이곳에 왔으니 지금부터 나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그대들도 수행의 이상에 도달하게 되어 비로소 출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래(如來)는 부처(佛)와 같은 뜻으로 인도 말로는 타타가타(Tathagata)라 한다. 그 뜻은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자'이다. 이 대목에서는 붓다 자신이 스스로를 '여래'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구들이여, 출가(出家)한 사람은 두 가지의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 극단은 관능(官能)이 이끄는 대로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은 천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극단은 바로 너희들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데에 열중하는 것인데, 이것은 괴롭기만 할 뿐 천하고 무익하긴 마찬가지이다.”

“수행승들이여, 이 여래(如來)도 한때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이 중도에 의하여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을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적멸(寂滅)과 깨달음으로 눈뜸과 열반에 이르렀다.”

이때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고행승 앞에서 행한 붓다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은 부처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이 태자로 있던 시절 세 명의 부인들과, 세 곳의 궁전을 전전하며 수많은 궁녀들에 에워싸여 온갖 욕망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했으나 이런 반복적인 생활이 권태를 가져 왔으며 남은 여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출가를 감행하였다. 출가 후엔 하루 빨리 열반의 경지에 오르겠다는 조급한 정서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스승을 찾아보고 자신의 육체를 괴롭혀 욕망을 억제하여 보았으나 그 결과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 6년 동안의 고행을 통하여 한 때는 음식을 끊고 굶어 아사(餓死)직전까지 도달해 본 경험도 있었던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다. 즉, 올바른 견해(正見), 올바른 결의(正思惟),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행위(正業), 올바른 생략(正命),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사념(正念), 그리고 올바른 명상(正定)이다. 이것을 두루 합쳐 팔정도(八正道)라 하니 수행승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다.

팔정도에 이어 사성제가 있으니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질병도 괴롭고 죽음도 괴로운 것이다. 미운 자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인간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모두 괴로움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네 가지 고통(四苦)

이라 한다면 나중의 네 가지를 합쳐 여덟 가지의 고통(八苦)이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즉,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기쁨과 탐욕을 따르며 즐거움을 찾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각적인 욕망과 생존의 욕망, 그리고 생존의 단결에 대한 욕망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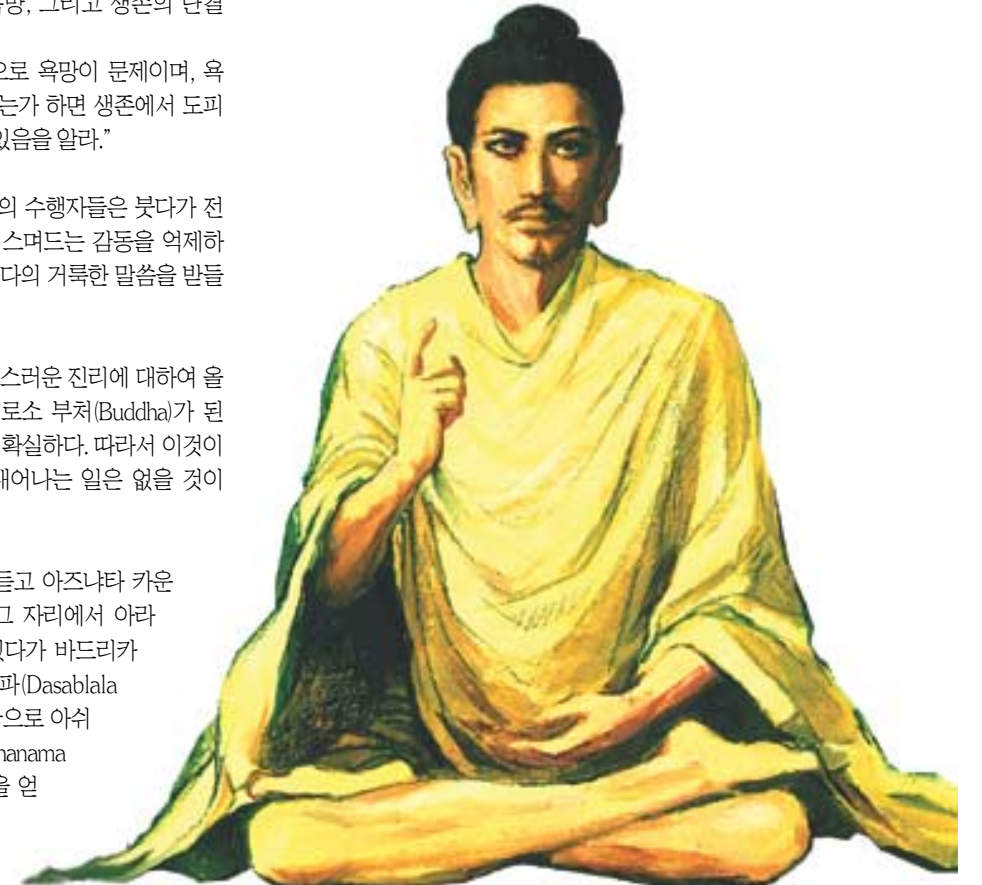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괴로움의 발생원인으로 욕망이 문제이며, 욕망과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있는가 하면 생존에서 도피하려는 허무주의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라.”

붓다의 법문을 듣고 있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붓다가 전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손을 받쳐 붓다의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모시었다.

“수행자들이여, 이상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완성됨으로써 나는 비로소 부처(Buddha)가 된 것이다. 나의 해탈(解脫, Vimoksa)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애이고 이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붓다의 초전법륜을 듣고 아즈나타 카운딘야(Ajnata Kaundinya, 橋陳如)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阿羅漢)이 되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바드리카(Bhadrika, 拔提)와 다사발라 카사파(Dasabhlala Kasapa, 十力迦葉)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슈바지(Asvajit)와 마하나마 쿨리카(Mahanama Kulika, 摩男拘利)가 차례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Arhan)이 되었다.

※(Arhan, 阿羅漢) : 소승불교 최고의 성자로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든 성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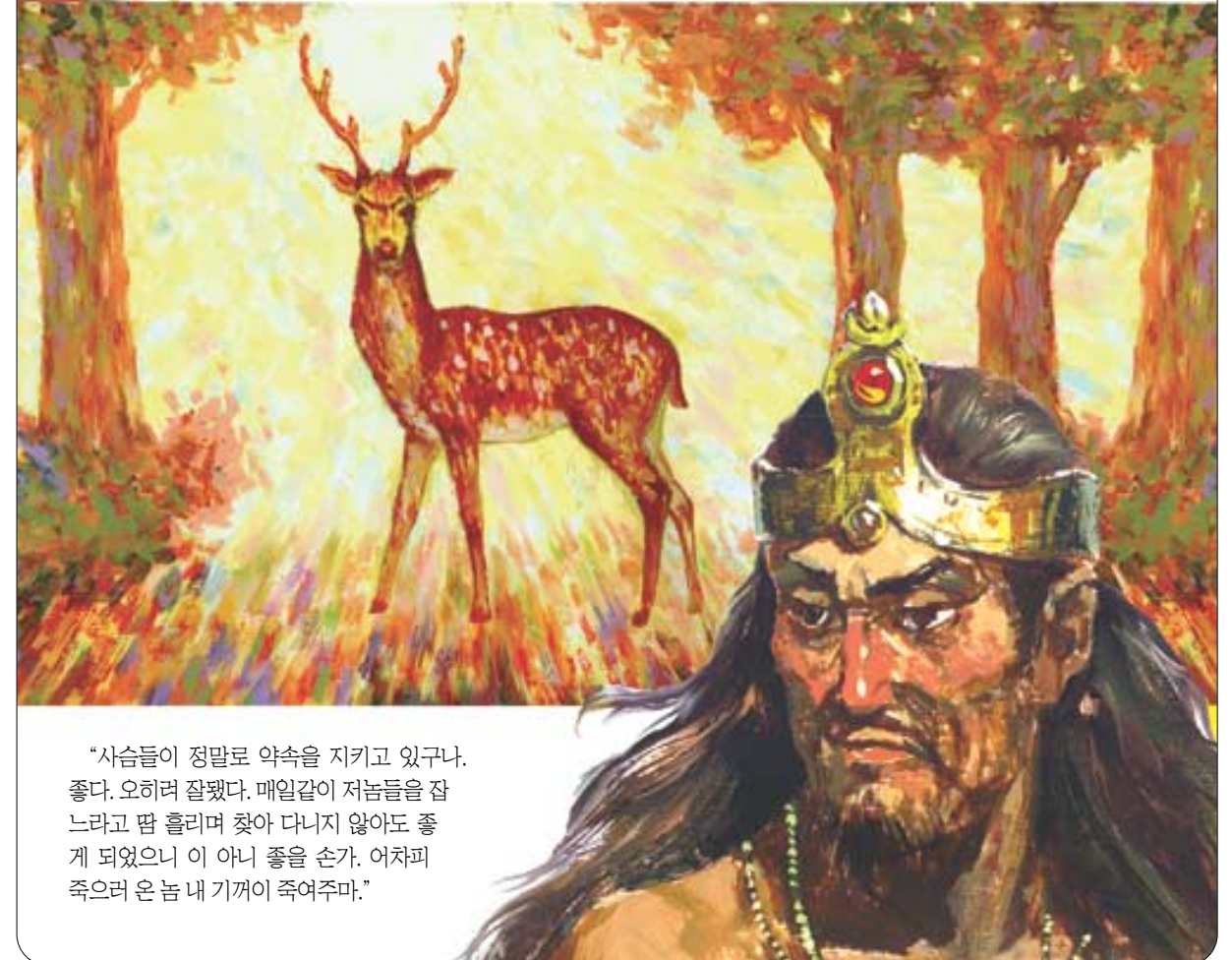
**부** 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신 이 녹야원에는 예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서 여기 잠깐 소개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르나트의 숲 속에는 두 떼의 큰 사슴 무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사슴들은 각각 500마리씩 떼를 지어 그들의 사슴왕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바라나시를 통치하던 왕은 사냥하기를 즐겨 매일같이 부하들과 이 숲 속을 찾아와 여러 마리의 사슴들을 사냥하곤 하였다. 이 바라나시 왕의 출현으로 사르나트의 평화는 깨지고 매일같이 왕의 화살을 피하려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곧 사슴들은 멸종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왕** 마동안 사슴을 응시하던 왕은 드디어 이 사슴 왕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할 말이 있는 듯 해 보였고 이어서 신기하게도 사슴 왕의 생각이 바라나시왕의 마음속에 전달되었다.

“위대한 바라나시의 왕이시여, 왕께서 사냥을 즐겨 이처럼 매일같이 우리 사슴을 죽이시면 머지않아 우리 사슴들은 몰살당하고 말게 되웁니다. 왕께서 우리 사슴고기를 즐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즉, 내일부터 우리 사슴들이 순서를 정하여 하루에 한 마리씩 왕의



궁궐로 찾아갈 것이니 그 한마리만 잡아드시면 저희들도 멸종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다. 네 생각이 확실히 일리가 있고, 나 역시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의 사슴고기는 필요 없으므로 그럼 네 뜻대로 하도록 해보자.”

마침내 바라나시의 왕은 사슴왕의 흥정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모두 되돌려 보냈다. 용기 있는 사슴왕의 행동에 감동한 것이었다. 다음날이 되자 과연 사슴왕의 약속대로 한 마리의 건강한 사슴이 목을 숙인 채 기운 없이 바라나시의 궁으로 찾아왔다.

“사슴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좋다. 오히려 잘됐다. 매일같이 저놈들을 잡느라고 땀 흘리며 찾아 다니지 않아도 좋게 되었으니 이 아니 좋은 손가. 여차피 죽으려 온 놈 내 기꺼이 죽여주마.”